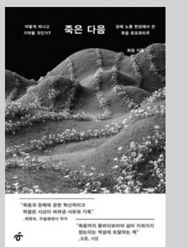
죽음·삶·노동 넘나들며 생명의 마지막 장면을 성찰하다

죽은 다음
희정 | 한겨레출판사 | 2만2000원



국내에서는 해마다 많은 이들이 자살, 고독사, 산업재해, 참사 등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439명으로 하루 평균 39.5명으로 나타났고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독사 사망자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8.8%로 증가했다. 죽음이 넘쳐나는 시대에 장례노동자가 된 르포 작가가 삶에 대한 급진적 질문을 건넨다.

살아가고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펴내는 기록노동자 희정 작가는 이번 신간을 통해 현실 속에서 죽음을 둘러싼 노동, 제도, 문화, 정동을 조망한다.

장례지도사, 수의 제작자, 시신 복원사 등 직접 장례 현장에 몸을 담갔던 저자는, '좋은 죽음'이 개인의 준비나 운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문화, 법적 조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죽음마저 '외주화'된 시대, 장례 역시 산업화되고 상품화되면서 '애도'는 빠르게 소비되는 행위가 됐다고 그는 지적한다.

특히 의료화와 도시화가 만들어낸 현대 장례 풍경은 30여년 만에 급변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집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이제는 75% 이상이 병원에서 죽고 병원 지하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고인은 상조회사에 맡겨지고, 유족은 3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애도의 시간은 너무 짧고, 장례는 너무 빠르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법적 가족 중심의 장례 제도는 1인 가구, 비혼자, 무연고자에게 장례 자체를 어렵게 만들며 현행 장사법과 의료법, 상속법은 모두 '정상가족'이라는 틀 안에서만 장례와 사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장례 현장에서는 홀로 죽는 이들을 수습하는 장례 노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장례업은 대표적인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중심 노동의 현장이다. 저자는 장례 실습생으로서 염습을 돕고, 빈소에서 음식을 나르며 장례 노동자들을 만난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시취이고, 시취보다 더 무서운 건 일자리라는 이들의 말은 죽음을 둘러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수고가 '누구의 노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장례가 여전히 터부시되고, 애도의 노동이 여성성과 결부된 '가정의 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편견 속에서도, 그들은 시신을 복원하고 고인의 입술에 립밤을 바르며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동을 묵묵히 수행한다.

책은 또한 국가가 참사를 '사고'로 고치고, 유족에게는 '슬픔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전태일, 용산참사 철거민, 김용균 노동자 등 '공적 애도'가 필요한 죽음을 조명하며, 장례가 단순히 고인을 떠나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를 묻는 행위임을 말한다.

독자들은 책을 정독하며 죽음이 상품이 된 시대 속에서 존엄한 죽음, 나답게 기억되는 죽음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게 된다. 생전 장례식, 무연고자 공영장례, 장례협동조합 같은 국내의 실천 사례는 물론, 죽은 이를 축제로 기리는 멕시코, 시신과 함께 몇 년을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토라자의 장례 문화까지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념을 사회, 시대마다 달라지는 애도의 방식으로 보여준다.

저자는 죽음이라는 끝에서 삶을 다시 묻는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은 고인을 잊으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죽은 이의 삶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남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질문하자는 뜻이다.

죽음은 삶의 거울이고, 애도는 살아 있는 자들이 공동체를 상상하는 방식이다. 무겁지만 따뜻하게, 실용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며 독자에게 삶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볼 기회를 건넨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무능·무법·무례의 시대…尹 집권 3년간 퇴행을 추적하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졌는가
박현 | 서해문집 | 1만8500원

2022년 가을, 한 일간지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연재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반년 만에 사회 곳곳에서 시작된 '후진국으로의 퇴행 징후'를 지적한 글이었다. 이 칼럼은 시간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 풍경을 제법 정확히 내다본 텍스트로 평가받는다. 신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졌는가'는 이후로도 계속된 추적 관찰의 기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잠절했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한국의 시장경제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켰고 독선적 행보, 권력기관 사유화, 검찰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한 행정부, 방미외교('바이든-날리면'), 금융정책(레고랜드 사태)에서 보인 아마추어리즘과 몰염치 등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난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그의 위기대응 역량 부재는 정책에 무능, 통치에 무법인 것을 넘어서 국민에 무례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줬다.

3無 정권이 구석구석 좀먹은 대한민국의 3년간 벌어졌던 21개 사건을 건져 올린 저자는 이처럼 무능·무법·무례가 초래한 한국사회의 퇴보를 거대한 인과관계로 결속된 채 드러난 전모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검찰공화국의 V1, V2 △극우 돈키호테의 역사전쟁 △'좋아 빠르게 가' 버린 어느 독재자의 사회 △Back To The 1980 등으로 구성됐다. 윤 전 대통령의 '돈키호테' 기질과 반대파를 검찰권으로 찍어 누르는 검사정치·사정정치의 결합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어떻게 붕괴시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잃어버린 3년의 후유증을 고발한 이 작품은 끝으로 시민의 집을 재건하는 일은 그동안 허물어지고 새는 곳을 꼼꼼히 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고 피력한다. 단순히 지나간 정권의 뒷공론이 아니라 회복과 재건을 위한 복기인 셈이다.

박찬 기자

싱가포르 여행 전 완독 필수 '끝판왕 가이드북'

팔로우 싱가포르
김낙현 | 트래블라이크 | 1만7000원

동남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며 살고 있는 여행작가 김낙현이 신간을 통해 싱가포르를 온전히 즐길 가장 완벽한 방법을 소개한다. 치밀한 여행 계획이 곧 여행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휴가 시즌에 앞서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알아둬야 할 모든 정보를 짚어주는 끝판왕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모든 순간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한 싱가포르에는 여행자의 발걸음마다 특별한 경험이 기다린다. 마리나베이 샌즈 스카이파크에서 바라보는 도심의 압도적인 마천루,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와 함께하는 자연의 신비, 밤을 수놓는 황홀한 야경,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이국적인 거리, 센토사섬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휴식의 완벽한 조화까지, 싱가포르의 매력은 그 어떤 예상도 뛰어넘는다.

동남아시아 전문 여행 작가의 탄탄한 취재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한 이 책은 단 한 번의 방문으로도 싱가포르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는 최신 여행법을 제안한다. 마리나베이 샌즈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뉴 어트랙션을 비롯한 각종 테마파크를 200% 만끽할 방법과 여행자 취향에 맞는 추천 호텔 정보까지 풍성하게 담았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감성 산책 지도를 함께 구성해 더욱 실용적인 관람이 가능하며,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마리나베이 샌즈 호캉스를 빈틈없이 누릴 수 있는 가이드, 주얼 창이의 핵심 포인트를 즐기는 법까지 포함됐다.

1권 '최강의 플랜북'과 2권 '실전 가이드북'으로 분권 제작해 여행자의 편의도 높였다. 지역별 추천 코스와 최신 교통 정보도 여행 동선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도 부담 없이 일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MRT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법, 맞춤형 쇼핑 전략, 스마트한 여행에 유용한 앱과 사용법, 입국 절차와 사전 준비 서류, 싱가포르에서 꼭 지켜야 할 여행 매너와 겪을 수 있는 상황별 사례까지 함께 제시해 여행 준비를 빠짐없이 돕는다.

박찬 기자

꽃은 오래 머물지 않아서 아름답다
이생문 외 76인 | 문학세계사 | 1만6800원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노년의 언어로 쓰인 시집이 발간돼 화제다.

바로 '꽃은 오래 머물지 않아서 아름답다'다.

제2회 '어르신의 재치와 유머' 짧은 시 공모전 수상작품집인 이 책은 65세에서 100세까지, 인생의 길고도 깊은 시간을 건너온 노인들이 쓴 원숙한 몇 행의 시를 담아냈다. 전국과 해외에서 투고한 8500여편의 시 중 엄선한 77편의 짧은 시를 엮어 선보인다. 각 시에는 짧은 형식 속에 삶의 통찰과 유머, 그리움과 사랑, 노년의 혜안과 따뜻함이 담겼다.

대상 수상작 '저녁노을'은 단 세 줄로 인생의 황혼을 금빛 노을로 그려냈고, '찔레꽃 어머니'는 어머니의 부재를 찔레꽃 향기로 남겨두며 '영감 생각'은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사랑의 눈물을 시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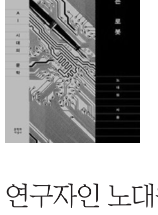
총알의 기억
범현이·하성흡 | 내일을여는책 | 1만5000원

5·18민주화운동으로부터 45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광주가 남긴 아픔은 현재진행형이다. 시위대뿐 아니라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들에게도 총을 겨눴던 계엄군은 과거 속에 존재하는 흑역사가 되는 듯했지만, 불과 지난해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무장한 계엄군을 보고 시민들은 80년 광주의 악몽을, 그날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봤던 일이 현실에서 다시 벌어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민주항쟁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책의 저자는 국가폭력의 잔상이 삶을 내내 지배했다고 전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5·18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다. 이 작품은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에 '미안하다' 말하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참회의 목소리처럼 다가온다.

소설 쓰는 로봇: AI 시대의 문학
노대원 | 문학과지성사 | 1만7000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분야를 막론하고 침투하고 있다. 이는 예술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AI가 영화 및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미술 작품을 그려내는 시대다. 생성형 AI의 영향력은 문학 분야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문학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디어와 초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 생산성을 크게 늘려 인간 작가만으로는 불가능한 작품을 산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이에 문학계에서는 새로운 장르의 문학이 출현해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학평론가이자 AI 교육 연구자인 노대원 작가는 책을 통해 "예술을 완성시키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결국 예술가, AI, 문학 산업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저자는 설파한다.